

시집의 신뢰성과 열린 비평

김주연

숙명여대 독문과 교수

60년대 시인들은 가난하였다. 아니, 어찌 60년대 뿐이겠는가. 내가 아는 한, 나와 잘 아는 시인들은 대체로 가난하였다. 그러나 더이상 시인들은 반드시 가난하지 않은 것은 이즈음의 현실이다. 이른바 베스트셀러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시집들이 차지하고 있고, 적지 않은 시인들이 제법 인쇄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고무된 탓인지 시인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온다.

우리시를 열심히 읽은 전문적인 독자의 한 사람인 나로서도 이즈음처럼 시읽기 힘든 때가 없다. 무엇보다 엄청난 그 숫자 때문에 시는 고사하고, 시인들 이름마저 익힐 겨를이 없는 것이다. 최근 5, 6년 사이에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졌는데, 예컨대 지난주 어떤 통계에 나온 시집 베스트셀러 다섯 권은 모두 그 저자가 내게는 생소한 이름들이었다. 그것은 이러한 시인들 중 상당수가 문학적인 분석 및 평가와 무관한 자리에서 소비적인 문자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일 수 있다.

시인들이 많고, 시집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팔린다는 사실 자체는 물론 경하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반가움은 시인들과 시집들이 그 양에 걸맞는 질적인 수준을 동반하고 있다는 전제와 더불어 진실한 것이 된다.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백화점의 불량상품 바겐세일을 연상시켜 우리의 마음은 편치 못하다. 좋지 않은 상품은 대개의 경우,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한데 그 까닭은 그것들이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않고, 우리의 불쾌감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허물며 문학작품의 경우 그 폐해는 엄청나다.

좋은 작품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반성케 하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주며 사회와 현실에 대한 올바른 비판을 가능케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불량작품은 거꾸로 정신을 마비시키고 비판의식을 약화시키며, 삶에 대한 반성 대신 일상의 타성적 늪으로 인간을 몰고 간다. 요컨대 자아의 실현 아닌, 자아의 퇴행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들로 사회구성이 이루어질 때 그 사회는 발전하지 못하고 퇴행한다. 좋은 문학작품은 이 때문에 좋은 것이며, 나쁜 문학작품은 역시 이런 이유로 나쁜 것이다.

하나의 작품이 좋은 문학이나 아니냐 하는 평가가 그 작가의 활동량과 반드시 함께 가지는 않는다. 또한 그 작가가 이른바 문단적으로 공인된 제도를 통해서 등단한 작가이냐는 문제와 일정한 관계를 갖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비판을 향해 그것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하며 이때 그 비판이 전문적인 문학비평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더욱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문학비평은 언제나 하나의 작품이 그 작가의 진실한 고통의 산물인지, 그리고 그 작품으로 인하여 사회와 세계의 한 모퉁이가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을 그 작품이 지니고 있는지 주목한다. 여기에 비평의 문학적 기능이 있고 비평과 더불어 가는 작품의 문학적 수준에 대한 신뢰가 있다.

오늘의 많은 시인들과 시집들에는 이러한 신뢰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들은 독서시장에 직접 뛰어들으로써 독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겨냥한다. 이 경우 독자대중은 문화와 소비를 분간하고, 그릇된 욕망에서 구원될 방책을 너무 적게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된다.

뉴스 2	국내 최초의 소련도서전시회 · 외
시집특집 4	시집출판의 역사와 현황 자비출판에서 시집대중화의 시대까지
7	기본 잡지들 깬 본격 시전문지 문화 계간지 주류 이론 가운데 10여종 각축
8	시와 독자의 만남 주도하는 시집시리즈 80년대 이후 부쩍 활기 ... 시 대중화에 기여
10	새 차원 열어야 할 베스트셀러 시집들 출판상업주의 두드러져 '문제현상'으로 부각
12	엄밀한 의미의 앤솔로지가 필요하다 '모음' 아닌 '선별'로서의 시선집 왜냐
14	비평가들이 주목한 90년대의 시집 문학전문지들의 서평 대상 시집들
15	아직도 어젠דת한 그 산고의 입덧 — 박라연 시집을 내는 기쁨과 고통
16	시집으로 보는 시인의 얼굴 「山詩」 펴낸 서정주씨 「물운대行」 펴낸 황동규씨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낸 정희성씨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 ...」 낸 유하씨
20	나를 시인의 길로 이끈 한권의 시집 신경림 / 최영철 / 조정권 / 박이도 / 안도현 / 이형기 곽재구 / 김명인 / 송수권 / 정진규 / 황학주 / 박재삼 천양희 / 정공채 / 김종길 / 이승훈 / 고희렬 / 김영태 김종해 / 윤성근 / 고정희 / 김혜순 / 장정일 / 하재봉 허수경 / 이정주 / 홍윤숙 / 이시영 / 김남주 / 임동환 정호승
서평 24	고재석 「한국근대문학지성사」 — 김재홍 김광웅 「한국의 관료제 연구」 — 김석준
25	스미스 「베버와 하버마스」 — 김재현 리카도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 권기철
26	하워드 「우주의 발견」 — 유경로 시계루 「하늘의 과학사」 — 성영곤
27	이태호 「우리시대 우리미술」 — 윤범모 임철우 「그 섬에 가고 싶다」 — 정한용
교양논단 28	사회주의의 새로운 혁명 「일뿔세 테제」 국내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에 급격한 관심
세계의 출판 30	중국 반체제 물리학자의 행적 · 외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2	신간목록
48	프리즘 / 재미있는 책이야기 / 정기구독 안내